

석유화학, 대졸 초임연봉 3121만원

산업별 10대기업 평균 3023만원 ... 건설 3356만원에 정보통신 3100만원

산업별 10대기업의 대졸 초임연봉은 평균 3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www.incruit.com)가 연봉사이트 오픈샐러리(www.opensalary.com)와 공동으로 11개 산업별로 매출액 대비 10대기업인 110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74사의 대졸 초임 연봉은 평균 302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금융권의 평균연봉이 341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이 3356만원, 조선·중공업·기계가 3154만원, 정유·석유화학이 3121만원, 정보통신이 31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식음료는 2674만원, 제조업은 2680만원, 자동차는 2748만원 등의 초임 연봉은 전체 평균인 3023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기업 중에는 대림산업의 대졸 초임 연봉이 38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사 대상기업 가운데 연봉이 가장 적은 2400만원에 비해 무려 1400만원 많은 수준이다.

한편, 동일 산업에서도 기업에 따라 연봉차이를 보였는데 최고·최저 연봉의 차이가 가장 큰 업종은 자동차 업종으로 880만원의 차이를 보였으며, 제약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연봉차는 500만원으로 조사대상 산업 가운데 기업별 대졸 초임의 연봉차가 가장 적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4/13>